

[사회]

조선대 정이사 체제 연기

교육부 "임시이사 5명 임기 6월말까지 연장"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의 정이사 체제 출범이 최대 6개월까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조선대는 1988년 이후 20년동안 지속돼온 임시이사체제를 청산하고 이달 초 임시이사 임기만료와 동시에 정이사 체제를 출범시킬 계획이었다.

조선대 법인은 최근 교육부로부터 '지난 2일로 임기가 끝나는 임시이사 5명의 임기를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문에는 또 '임시이사들의 임기(6월30일) 내에 정상화 추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부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3일 열린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정기회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이사 체제 전환을 통해 법인 정상화를 추진 중인 대학 구성원들과 박철웅 전 총장 일가도 대표되는 구 재단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판단을 위해 최소한 6개월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구 재단 측은 지난해 이미 교육부에 '전직이사의 권리를 인정해 새 이사회를 구성할 때 3분의 2 이상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청

원서를 제출했다. 조선대 측이 오는 17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등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양측 대표를 불러들이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다음 정기회의는 2월14일 열린다.

조선대 법인 관계자는 "지금까지 교육부에 제출한 서류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우리측의 의견을 들어볼 생각이 없다"며 "사학분쟁조정위가 양측의 의견을 듣고 판단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만약, 사학분쟁조정위가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 임시이사의 임기 내에 판단을 내렸을 때는 임기(6월30일)와 관계없이 정이사를 선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등 일정을 감안해 볼 때 정이사 체제 전환 시기를 예측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3명의 개방이사 추천 일정은 10일 광주시청·광주 시교육청·기업 등에서 추천받은 후보 접수가 마감되며, 15일부터 개방이사추천위원회(위원장 이상열 교수 명예회 의장)의 심사가 이뤄지는 등 예정대로 이어진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9일 오후 해남군 화산면 삼마도 김 양식장에서 김 채취를 끝낸 어민들이 김발을 뒤집고 있다. 해남, 완도 등 양식장 밀집지역은 타르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방제당국은 오일펜스를 치는 등 타르의 남해안 유입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위정량기자 jwi@kwangju.co.kr

“타르 습격 막아라” 총력전

해남·완도 양식장 공포 속 오일펜스 설치 등 예찰 강화

태안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타르 덩어리가 지난해 말 유입된 이후 10여 일이 지났지만 전남 서해안을 연결하는 해남, 완도 등 양식장 밀집지역은 아직 안전하다.

해남군과 완도군 등 자치단체와 해경 등은 서해안 연결 해역에 오일펜스를 치고 타르 남해안 유입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해남 최대 김 생산지인 화산면 삼마도(상·중·하마도), 김 양식 어민 100여명이 9일 오전부터 바다에서 갓 건져 올린 김을 출하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결모습은 여느 때처럼 평온했지만, 타르 덩어리가 인근 진도 앞바다까지 흘러들어왔다는 소식이 양식 어민들은 불안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상·중·하마도 등 세계 섬으로 이뤄진 삼마도 지역은 매년 2천140ha에서 150여억 어치의 김을 수확하는 곳

으로 타르가 유입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곳이다.

김 300백(1백당 김망 40m)을 양식 중인 어민 김영민(48)씨는 “타르 때문에 새벽에도 인근 바닷가와 김 양식장을 둘러보고 왔다”면서 “타르가 전남해역에 밀려온 뒤부터 밤잠을 설치 정도다”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30년째 김 양식을 하고 있다는 김재우(67)씨는 “김 생산지 가운데 타르 피해가 없는 곳은 해남과 완도 뿐이다”며 “타르 때문에 해남 김의 이미지가 흐려지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종선(38) 어촌계장은 “다른 지역의 타르 오염 때문에 해남 김의 명성이 떨어질까 걱정스럽다”면서 “조류의 흐름상 해남으로 타르가 흘러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타르 유입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는 삼마도 어민들도 기름

유출에 직격탄을 맞을 경우 그 과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떨쳐 내지는 못하는 모습이었다.

해남군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예찰반을 구성하고 해남 해협의 길목인 화산면 등을 중심으로 철저한 타르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해남군은 삼마도 해상엔 2천200m 길이의 페그물을 설치했다.

완도 어민들도 타르 공포에 떨기는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최대의 전복(전국 생산량의 80% 생산) 생산지인 완도해역은 1조원대의 양식 수산물을 보유하고 있어 타르가 유입될 경우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괴력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완도군은 완도해협의 첫 관문인 해남 어란 앞바다(마로 해역)에 1차 방제 라인을 설정했으며 양식장이 밀집된 보길도와 죽골도 인근 해상에 2천 500m의 오일 펜스도 설치했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폐수 무단 방류 등 107개 사업장 적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거나 오염방지 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은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최홍철)은 지난해 대기·수질분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03개소를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벌여 이 가운데 107개소를 적발해 행정조치하고 42개소를 형사처벌했다고 9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폐수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이 ▲광주시 광산

구 장덕동 J금속 ▲고흥군 두원면 D 유류센터 등 37개소로 가장 많았고, 오염방지시설을 정상 가동하지 않은 사업장은 ▲영광군 군서면 S산업 ▲함평군 손불면 C축사 등 14개소였다.

또 ▲화순군 이양면 B광업 ▲장성군 황룡면 S산업 등 11개는 관할 행정기관에 허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무허가로 배출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타르 방제 자원 봉사자 민방위교육 4시간 인정

광주시는 전남 서해안 타르 방제작업에 자원봉사자에 대해 민방위교육을 4시간 인정해주기로 했다.

방제 봉사활동 참가를 희망하는 단체나 개인은 광주시에 구청 재난안전관리과 또는 피해를 입은 군청에 신청하면 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안개 속 출근길 1월 10일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으며 맑은 후 오후부터 흐려지겠다.

| 구분 | 날씨 | 최저/최고 |
|----|----------|--------|
| 광주 | 맑은 후 흐려짐 | 0~12℃ |
| 전남 | 맑은 후 흐려짐 | 1~11℃ |
| 전북 | 맑은 후 흐려짐 | 1~11℃ |
| 충청 | 맑은 후 흐려짐 | 4~11℃ |
| 경상 | 맑은 후 흐려짐 | 1~11℃ |
| 강원 | 맑은 후 흐려짐 | 1~11℃ |
| 제주 | 맑은 후 흐려짐 | -2~13℃ |
| 서울 | 맑은 후 흐려짐 | -3~12℃ |
| 부산 | 맑은 후 흐려짐 | -3~12℃ |
| 대구 | 맑은 후 흐려짐 | -2~13℃ |
| 인천 | 맑은 후 흐려짐 | -2~12℃ |
| 대전 | 맑은 후 흐려짐 | -1~11℃ |
| 충주 | 맑은 후 흐려짐 | 0~14℃ |
| 영주 | 맑은 후 흐려짐 | -1~11℃ |
| 춘천 | 맑은 후 흐려짐 | -5~10℃ |
| 강릉 | 맑은 후 흐려짐 | 5~10℃ |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5m
남해서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0m
남해동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0m
목포 밀물 < 02:53 썰물 < 08:19
여수 밀물 < 15:42 썰물 < 21:01

▲해돋이 07:41 ▲해질 17:38 ▲달돋 08:57 ▲달질 19:21
△주간 날씨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 날짜 | 11(금) | 12(토) | 13(일) | 14(월) | 15(화) | 16(수) |
|-------|-------|-------|-------|-------|-------|-------|
| 날씨 | ☁ | ☁ | ☀ | ☀ | ☀ | ☀ |
| 최저/최고 | 4/5 | -1/6 | -3/3 | -3/3 | -4/4 | -5/5 |

경찰청장에 어청수씨 내정

다음달 9일 임기가 끝나는 이택순 경찰청장의 후임으로 어청수(사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내정됐다. 대통령직인사위원회는 9일 “청와대에서 최근 어 청장을 차기 경찰청장으로 추천했으며, 인수위측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청와대 친호선 내빈도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인수위 측의 의견을 들어서 인사추천과 검증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0일 개최되는 경찰위원회에서 어 청장이 차기 경찰청장으로 추천될 것으로 보인다.

어 청장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와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 임명 절차를 거쳐야 정식 임명된다. 차기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권은 노 대통령에게 있으나 청와대는 최근 차기정부 출범 전 임기가 끝나는 인사에 대해서는 인수위 의견을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경남 진양 출생의 어 총장 내정자는 진주고와 동국대를 졸업하고 ▲서울 은평경찰서장 ▲대통령 치안비서관 ▲부산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을 역임했다.

/연합뉴스

“박수근 ‘빨래터’ 진품” 미술품감정연구소

한국미술품감정연구소가 위작 의혹이 제기된 45억2천만원짜리 박수근(1914~1965) 화백의 유화 ‘빨래터’(크기 72×37cm)에 대해 진품이라는 감정 의견을 9일 냈다.

/연합뉴스

그러나 당초 위작 의혹을 제기한 아트레이드 측이 감정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진위 공방은 법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미술품감정협회 부설 감정연구소는 이날 외부 전문가까지 참여해 확대감정을 실시한 결과, 위작이 아니라는 의견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무봉합 각막내피 이식술 전남대병원 국내 첫 성공

윤경철 교수팀

전남대병원이 국내 최초로 봉합이 필요없는 각막내피 이식술에 성공했다.

전남대학교병원 안과 윤경철(사진) 교수팀은 9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봉합을 실을 사용하지 않고 미세각막결핵용 칼(Microkeratome)을 사용, 데스메막(Desemet's membrane·각막 내피 위의 얇은 막)을 분리하고 각막내피를 이식하는 디섹(DSAEK) 수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윤 교수팀은 지난 7월 수십 년간 각막내피 세포의 손상으로 인해 수포각막병증이 발생, 각막부종과 혼탁으로 실명위기에 있던 56세 남자 환자(70세 여자 환자 등 2명)에게 디섹 수술·인공수정체 공막교정술·백내장 수술을 동시에 시행했다.

수술 결과 실명상태였던 두 환자 각막 투명도가 회복되고 사물을 분간할 수 있을 정도로 우수한 시력개선 효과를 얻었다.

디섹 수술은 부분마취로 각막을 4.0mm 정도 절개하여 절개부

위로 기증된 각막내피를 투입, 공기방울을 이용해 펼치는 방법이다. 이는 봉합을 하지 않고 각막내피를 이식하는 매우 획기적인 이식 수술방법으로 꼽힌다.

기존 각막이식술에 비해 디섹 수술은 각막절과 근시, 난시 등의 굴절이상에 변화가 거의 없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인트라 레이저를 이용한 각막내피이식술이 일부 시도됐으나 수정체 수술과 동시에 시행한 본격적인 자동 각막내피 이식술은 이번이 첫 사례다.

윤경철 교수는 “디섹 수술의 성공으로 인해 수술시간이 1시간에서 30분으로, 회복기간은 1년에서 2개월로 줄어들게 됐다”며 “향후 각막내피 손상으로 인한 여러 질환으로 시력장애가 생긴 많은 환자들에게 디섹 수술이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전액국비수강생모집

부동산실무

| 구분 | 교육과정 | 교육기간 | 개강 |
|-----------|-------|------|-----|
| 재직자 및 일반인 | 공인중개사 | 2개월 | 매월초 |
| | 주택관리사 | 2개월 | 매월초 |

※ 2008년도 대비 6개월과정 특별반 접수중!! (주간반/야간반/주말반)

컴퓨터

| 구분 | 교육과정 | 교육기간 | 개강 |
|-----------|-----------|------|--------|
| 재직자 및 일반인 | 컴퓨터활용실무 | 2개월 | 12월 3일 |
| | CAD | 2개월 | 매월초 |
| | 워드실기 | 1개월 | 수시 |
| | 컴활실기 | 1개월 | 수시 |
| | 정보화기초 1.2 | 5주 | 매월초 |

※ 교육대상 : ■ 고용보험에 가입된 재직자 교육료 무료 환급 ■ 일반인 및 대학생 수강료 특별할인

● 노동부지정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현대직업전문학교

동부경찰서 옆 ☎224-4560, 232-1088 http://www.hdedu.co.kr

= 겨울방학 대 특강!! =

7급 공무원

완전 대비

강좌 직종 =

| | | | | | | | | | | | | | |
|-----|-----|-----|-----|-----|-----|-----|-----|-----|-----|-----|-----|-----|-----|
| 행정직 | 교서직 | 관서직 | 감사직 | 법원직 | 검찰직 | 교정직 | 보통직 | 소방직 | 전산직 | 복지직 | 토목직 | 건축직 | 물리화 |
|-----|-----|-----|-----|-----|-----|-----|-----|-----|-----|-----|-----|-----|-----|

※수많은 선배 공무원들의 '無等, 선택은 역시 지혜로웠습니다'※

개강: 1월 15일 주·야 (휴일)반 모집 (합제예알)

= 46년 전통의 無等은, 강의第一! 합격最多란 말을 듣고 있다 =

www.mdgoal.co.kr ☎ 222-4560

www.hanbitgosi.co.kr = 2008년 공무원 합격은 한빛이 주도한다.

2008년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시험 거침없이 합격하라! - 한빛이 응원합니다!

7급 공무원 합격 대 특강

개강: 2월 1일

9급 문제풀이반 (1개월완성) 개강 2월 1일

9급 이론짜수반 (2개월완성) 전직종 첫진도

사전예약접수중

한빛공무원학원

전대유문 부구청앞 ☎(062) 252-0252

베트남 국제결혼

국제결혼! 선택이 중요합니다

본사만의 장점

1. 실속결혼비용으로 배필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본사가 베트남 현지에서 위탁하여 풍부한 성혼 노하우 축적
3. 현지 최다 여성회원 보유
4. 배우자의 신상을 정확히 파악 그에 맞는 배필과 초·재혼·만혼별 맞춤형 주선
5. 신부대상 한글, 한국문화, 예절교육을 입국전 실시하여 국내적응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아오자이 회사에서는 신랑댁에 꼭 방문합니다

900만원대로 배필을 맞이하세요

색사가 인건공함 도착전까지 모든비용 포함

오직 베트남만 고집합니다

아오자이국제결혼

문의 전화 ☎062)232-8966 ☎010-5256-8966

광주시 동구 충성로4가 55-1 금양오피스텔 1003호

※ e-mail: see8151@naver.com - 베트남사 직통메일연결시 30%DC